

## 朝鮮王朝의 中國使臣迎接에 대한 考察

金尚寶·李盛雨\*

대전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91년 12월 2일 접수)

## A Study on the Reception of Chinese Envoy in Choson Dynasty

Sang Bo Kim, Sung Woo Lee\*

Taejeon Medical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 Yang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2, 1991)

### Abstract

Welcome reception for chinese envoy had been very important affairs for Chosun Dynasty. The procedure for the reception was described in Youngjeob Dogam.

The events of each visit of Chinese envoy were also recorded in Youngjeob Dogam Euigwae. Among them, only the records of the year of 1609, 1610, 1626, 1634, 1637, 1643 are existing.

### I. 서 론

朝鮮王朝는 明나라와 淸나라의 使臣을 접대하기 위하여 迎接都監<sup>①</sup>을 설치하고, 영접도감에서 하는 일의 전말을 迎接都監儀軌와 迎接都監膳錄을 통하여 영접절차와 각종 의식 및 이에 소요되는 물품 조달, 인력동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였다.<sup>1,2)</sup>

著者 등은 이미 朝鮮王朝의 行幸食,<sup>3-5)</sup> 嘉禮食,<sup>6-11)</sup> 進宴食<sup>12-16)</sup>을 시대별로 고찰한 바 있다. 今般의 영접식에 대한 연구는 조선왕조 궁중 생활 문화의 전모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다른 儀軌보다 100년이나 앞선 1600년대의 궁중식의 종류나 상차림을 究明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本 報告는 朝鮮朝 宮中 迎接食을 迎接都監儀軌와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 2) 李盛雨, 朝鮮王朝行幸食, 嘉禮食, 迎接食, 儀軌의 解題. 미원문화재단, 1988.
- ① 迎接都監: 朝鮮朝에서 중국의 사신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職所.
- 3) 金尚寶, 韓福眞, 李盛雨, 園幸乙卯整理儀軌中調理面에서 본 水刺床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4, No. 2, 1989.
- 4) 金尚寶, 韓福眞, 李盛雨, 園幸乙卯整理儀軌中調理面에서 본 粥床, 米飲床과 顯隆園에서의 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4, No. 4, 1989.
- 5) 金尚寶, 韓福眞, 李盛雨, 園幸乙卯整理儀軌中調理面에서 본 盤果床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1, 1990.
- 6)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1600년대의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1, 1990.
- 7) 金尚寶, 李盛雨, 御製國婚定例(1749)에 대한 分析的 研究,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3, 1990.
- 8)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 9)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同牢宴所用器用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 10)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3, 1991.
- 11)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同牢宴所用器用과 床花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3, 1991.
- 12) 金尚寶 外5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正日進饌宴의 食儀禮에 대한 고찰,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1, 1991.
- 13) 金尚寶 外5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正日進饌宴의 상차림에 대한 考察,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1, 1991.
- 14) 金尚寶 外5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夜進饌宴의 상차림에 대한 考察,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2, 1991.
- 15) 金尚寶 外5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翌日會酌과 萬慶殿翌日夜饌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3, 1991.
- 16) 金尚寶 外5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再翌日會酌과 萬慶殿再翌日夜饌의 상차림에 대한 考察,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3, 1991.

膳錄을 통하여 밝히는 일화로 朝鮮王朝의 영접 절차와 그 배경 등을 究明하고자 하였다.

## II. 영접절차

### 1. 入京使節의 종류

위화도회군에 뒤이어 등극한太祖는 明에 대한 외교수립에 細心 노력하였으며, 李仁任의 宗系誣辯에 대한 辯誣는 조선의 對明의존도가 강하면 강한만큼 조선에 대한 무형의 지배 형태로 나타나, 조선왕조 건국 이후 가장 번잡하고 지성으로 대한 것이 對明의교이고, 明은 宗主國으로서 명실상부한 주권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對明관계에서 오는 사절은 최선을 다하여 후대를 받았고, 만약 明使에 대한 소홀한 태도는 明帝에 대한 예의의 잘못으로 간과하기 때문에 명사 영접은 좋은 싫든 朝廷上下가 일심 단결하여 위로 접대하였다. 使節에는 朝鮮國王의 郎位承認, 王世子冊封承認, 賜諡,<sup>②</sup> 詰命,<sup>③</sup> 祭賜<sup>④</sup> 등과 明祭의 등극, 皇太子 冊封, 皇太后 冊封 등을 알려오는 詔書<sup>⑤</sup>와 勅書,<sup>⑥</sup> 그밖에 禮部咨文,<sup>⑦</sup> 遼東都司咨文, 傳訃, 吊祭, 冊封, 漂流人送還, 逃來人송환, 越境人문제, 入朝火者<sup>⑧</sup>관계, 처너擇送, 물품청구 등을 구하는 明使가 오며, 明使를 天使(天國의 使者) 또는 大人 또는 朝廷의 使臣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들 明使의 出來時에는 무역을 위하여 오는, 使者 수행원 들로 구성된 頭目이 있었고, 따라서 이들의 임정의 목적은 외교 문제 외에도 公私무역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들 明使의 出來는 임란 후까지 내왕이 많았으나 光海朝를 지나 仁祖反正 이후 丁卯란을 겪으면서 줄어들고 丙子胡亂이후는 明使 대신 淸使가 出來하였다.<sup>17)</sup>

### 2. 各地 迎接

明使가 조선에 오면 明使 출발과 一行내용의 통고(통고문을 牌文이라 함)가 遼東都司를 통하여 義州에 오게 되면 義州牧使가 平安監司에게 보고하고 監司는 서울에 馳啓하게 되면 조정에서는 迎接都監을 설치하고

영접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준비순서는 다음과 같다.

迎接都監 설치,  
館伴선정  
迎接使차출  
問禮官선정  
差備官선정  
各地通過地點迎慰使선정(6개처)  
요동도사수행시 都司宣慰司차출  
御前通事 등 결정  
年小宗親駙馬의 司甕院提調選任  
人情雜物예비

牌文<sup>⑨</sup>을 기준으로 出來하는 明使의 品階와 性格 기타 물물교환을 위한 劑來 물품을 알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면서 遠接使<sup>⑩</sup> 問禮官 差備官 등을 임명하여 義州로 파견하고, 원접사 일행이 義州에 도착하면 中江 중간에까지 출영하였으며, 義州에 도착하면 공식적인 의식으로서 압록강 迎勅儀가 이루어지고, 宴享이 끝나면 사신 일행에게 到京하기까지에 필요한 소정의 마필과 안내인 등이 전후좌우로 배열되어 義州의 접대 숙소인 龍灣館에 이르러서, 사신과 원접사에게 進酒果物이 올려진 가운데 樂이 연주되면서 호화스런 연향을 베풀었다. 龍灣館은 압록강변에 있는 館으로 船渠場에서의 의식장소로서의 館이고, 다음은 義州 시내의 접대 숙소인 義順館에서 접대하였다. 義州 출발 후 定州에서는 迎薰樓(定遠樓가 咸宗 19년 이후 迎薰樓로 바뀌어 짐), 安州에서는 安興館, 평양에서는 大同館, 黃州에서는 客館(유숙시 명절인 경우 客館의 동쪽에 있는 廣遠樓에서 設宴), 개성에서는 大平館에서 각각 성대한 연향을 베풀었다.<sup>18)</sup>

### 3. 京中 迎接

사신 일행이 개성을 지나 서울로 들어오는 최종적인 고개인 弘濟院(원로에 입고온 의복을 벗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 입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慕華館<sup>⑪</sup>(현재 서대문구 館洞 65번지에 위치하는 곳으로 太宗7년에

②③④ 사시(賜諡, 諡號를 하사함. 시호를 하사할 때는 그 하사에 관한 사유를 黃紙에 기록하고 이를 고명(詰命)이라하며, 賜諡禮가 끝나면 黃紙는 불태워 버리고 이에 대한 祭賜를 행하고 이를 분황제(焚黃祭)라 하였다.

시호(諡號); 종친 및 문무관 실직정2품 이상자의 死後에 追贈하는 칭호.

⑤⑥ 조서(詔書); 임금의 명령을 쓴 문서, 勅書; 임금의 명령(勅命)을 적은 문서.

⑦ 자문(咨文); 중국의 六部와 교섭하는 문서. 조선왕조국왕과 중국각부와 동등격식으로 왕복됨.

⑧ 입조화자(入朝火者); 중국조정에 들어간 환시(宦侍) 후보자. 중국에 바친 17, 18세로부터 12, 13세 가량의 환시의 후보자인 童子를 화자라 하며 입조라함은 이미 중국 조정에 들어간 것을 의미함.

入朝; 외국인의 朝廷에 참열함.

17) 李茲涼, 明使接待考, pp.69~90, p.108, p.129, p.150, p.165.

⑨ 牌文(牌文); 공문서.

⑩ 遠接사(遠接使); 사신을 멀리까지 나아가서 맞아들이던 임시 벼슬.

18) 同上, pp.90~109.

⑪ 모화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盤送亭으로 출영하였다 한다. 반송정은 정자가 아니라 그곳에(모화관 西池 근처) 큰 소나무가 있어 그 枝葉이 경반모양으로 퍼져 그 밑의 수심보탕이 그늘졌기 때문에 유래한다. 명칭은 고려왕이 南京 행차시 도중 비를 만나 이 소나무 밑에서 비를 피한 뒤부터 盤松亭이라 불렀다 한다.

세웠다. 다음해에 慕華館이 南池를 현재의 서대문구 금화국민학교 자리에 만들었는데 그 규모는 養魚米가 月 10斗가 소용되고, 南池에 과종할 연화는 개성 崇敎寺池의 것을 移種하였다 한다. 慕華館은 숙소가 아니고 다만 영접처로서만 이용되었다.)에 이르면 沙帽圍領에 儀仗 鼓吹를 구비한 王은 公服인 百官을 거느리고 慕華館까지 出迎하여 영접하였다. 慕華館에서 영접의례가 끝나고 휴식을 마친 후 사신일행은 “君子大路行”의 연유로 도성에서 제일 큰 崇禮門을 통하여 入京하여 경복궁 또는 창덕궁에 가서 明使出來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詔 勅은 明帝가 보내오는 것으로 엄숙한 의식을 통하여 접수되고 仁政殿에서 王과 王世子 明使 사이에 百官이 列立한 가운데 악이 연주되면서 접견의식과 茶禮가 行하여졌다.

慕華館에서 迎勅이 끝나고 仁政殿에 들어와 宣勅儀가 끝난 후 明使일행은 숙소인 太平館(현재 남대문국민학교 북쪽 일대)으로 돌아가게 되고 王世子와 百官이 가서 見官禮를 행한 후 연향이 베풀어졌다.<sup>19)</sup> 入京 후부터 돌아갈 때까지 宴享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첫째, 入京 직전 郊迎儀(교외에서)

둘째, 迎詔 勅儀(모화관에서)

셋째, 詔·勅 접수儀(경복궁 창덕궁에서)<sup>20)</sup>

넷째, 下馬宴<sup>21)</sup>(太平館에 도착한 다음날 태평관에서)

다섯째, 翫日宴(入京 또는 翫日 태평관에서)

여섯째, 仁政殿請宴(입정제3일째 되는 날 인정전에 오도록 청하나 오지 않으면 태평관에 가서 행한다)

일곱째, 回禮宴(入京 제4일째 태평관에서)

여덟째, 別宴(入京 제5일째 태평관에서)

아홉째, 上馬宴<sup>22)</sup>(回程일자가 정해진 뒤 태평관에서)

열째, 餞宴(回程日, 태평관에서)<sup>23)</sup>

로서 서울에 도착 후回程까지 下馬宴에서 餞宴의 7

회에 걸치는 공식적인 연회가 행하여진 것이고, 이들 연회의 規禮는 동일하여서,<sup>22)</sup> 제 1爵에서 제 9爵까지 있었으며 提學들이 국왕과 명사에게 割內肉進하고 進湯하며 7회의 연회를 明使가 감연하자고 하면 그 대신 3일째부터 大臣들이 茶禮를 청하여 하였으나<sup>23)</sup> 이 茶禮 또한 宴享 못지 않게 큰 宴享이었다 한다.<sup>24)</sup>

그런데 1808年 서영보와 심상규가 왕명을 받들어 찬진한 「萬機要覽」에 의하면<sup>25)</sup> 칙사가 입정한 다음날에 下馬宴을 베풀고 그 익일에는 翫日宴을 베풀며 또 익일에는 仁政殿請宴을 베풀고(이상은 王이 親臨함), 또 익일에는 回禮宴을 베풀고 또 익일에는 別宴을 베풀고, 회정(回程)할 입시에는 上馬宴을 베풀고(이상은 宰臣이 대행함), 회정일에는 餞宴을 베풀으니(王이 郊外에 親臨함) 함하여 7차례가 되었었는데 근래에는 많이 정감하고 3차례만 행한다(仁政殿請宴 館所宴<sup>26)</sup> 郊外餞宴) 만일 마침 齊日<sup>27)</sup>이면 茶禮로 대행한다. 연회의 명칭과 次數는 매양 입시로 가감하고 진퇴하는 예가 많다. 중간에 또 別茶啖 및 盤排가 있다는 것이다. 즉 7차례 연회에서 하마연, 익일연, 인정전청연, 진연은 왕이 친림하고 회례연, 별연, 상마연은 재신이 대행하며, 1800年代에는 간소하여져서 3차례의 연회만 베풀되 중간에 별다담과 반배가 있었다는 것으로, 명사신을 영접할 때보다 淸사신 영접이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III. 迎接都監의 구성 인원과 그 임무

영접도감의 구성 인원과 그 임무를 살펴보면<sup>26-30)</sup>

館伴提調<sup>28)</sup> 各 1員

應辦色<sup>29)</sup> : 禮單 청구물건 別雜牛 등을 담당한다.

宴享色<sup>30)</sup> : 宴享시 別茶啖<sup>28)</sup> 別饋酒 樂物 등의 일을 담당한다.

19) 上同, pp.114~140.

20) 上同, p.141.

21) 하마연(下馬宴) : 청국사신이 도착했을 때 베풀던 연회.

22) 通文館誌 乾 卷4 事大 入京宴享儀.

23) 李鉉淳, p.143.

24) 通文館誌, 乾 卷4, 事大, 上同.

25) 李鉉淳, p.148.

26) 민족문화추진회, 만기요람1, 민문고, 1989, pp.539, 540.

27) 상마연(上馬宴) : 청국사신이 떠날 때 베풀던 연회.

28) 관소연(館所宴) : 청국사신이 유숙한 館所에서 베풀던 연회.

29) 通文館誌, 乾 卷4, 事大, 都監堂上以下各務差備官.

30) 민족문화추진회, 만기요람1.

28) 金在得, 朝鮮王朝篇, 古文獻用語解例, 培英社, 1983.

29)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87.

30) 金明培, 茶道學, 學文社, 1991.

① 齊日(齊日) : 재계하는 날.

② 館伴(館伴) : 중국사신을 영접하여 접대임무를 총괄하는 행정, 또 이 사신의 영접도감의 首職으로서 입시로 임명된 관직의 명칭.

③ 應辦色(應辦色) : 외국사신이 쓰는 물건을 내어주는 일을 맡아보는 戶曹(호조)의 한 分掌.

④ 호조(戶曹) : 6曹의 하나인 동반정2품아문(東班正二品衙門) 戶口 貢賦田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보조기관으로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 등이 있음.

⑤ 宴享色(宴享色) : 국빈을 대접하는 잔치를 맡아보던 한 분장.

⑥ 다담(茶啖) : 다담상(茶啖床) : 사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차려내는 교상상.

米麵色<sup>20</sup> : 조식飯米, 酒燭, 香 駝酪, 柴炭, 藥物, 空日節일의 皮果 등을 담당한다.

飯膳色<sup>21</sup> : 三時支供의 酒, 肉, 鷄鮮, 柴炭, 米, 太 등을 담당한다.

別工作<sup>22</sup> : 철물 床卓, 香亭, 晝物 등을 담당한다.

雜物色<sup>23</sup> 各 2員 : 茶啖, 蜜 飯, 空日節일의 別餅 魚鮮 및 生果 등을 담당한다.

離禮色<sup>24</sup> 1員 : 軒架 才人을 담당한다.

分工曹<sup>25</sup> : 2員 : 例給皮物 鐵 등을 담당한다.

分內資寺<sup>26</sup> : 宴需用 果子, 散子 등을 담당한다.

分內贍寺<sup>27</sup> : 宴需用 果子, 床花 등을 담당한다.

分禮資寺<sup>28</sup> : 宴회시의 湯水와 空日외의 茶啖, 床花 등을 담당한다.

修理所 : 館内外의 造家 수리 등을 담당한다(館 : 태평관).

典說司<sup>29</sup>館内外에 各처의 차일장막(遮日帳幕, 해가림 휘장)을 설치한다.

司饗院<sup>30</sup> : 親臨宴享시 茶禮, 果盤, 味數 등을 담당한다(친림연향 : 왕참석연향).

長興庫<sup>31</sup> : 館内外의 鋪陳배설(자리갈기)와 塗袴(도배)를 담당한다.

濟用監<sup>32</sup> : 房排所入의 金鎰諸具, 병풍, 案席(안을 때

몸을 기대는 기구)을 담당한다.

尚衣院<sup>33</sup> : 衣函, 靴子, 北鞋, 硯墨香童子 등을 담당한다.

都廳軍色<sup>34</sup> : 都監, 依幕諸事 및 使動止, 房守, 把守, 刷馬軍人, 羅將, 禁喧房排, 布物, 開閉門 등을 담당한다.

太平館

御前通事<sup>35</sup> 3員

侍講院通事<sup>36</sup> 3員

引禮通事 2員

假使<sup>37</sup> 2員

假館伴<sup>38</sup> 1員

館伴差備官<sup>39</sup> 1員

提調差備官 1員

駕前差備官<sup>40</sup> 2員

駕後差備官<sup>41</sup> 2員

御幕禁止差備官 1員

奉勅差備官<sup>42</sup> 2員

解結裏差備官 2員

龍亭護衛差備官 2員

賜物差備官 2員

入京後加定差備官 2員

茶房差備官 2員

20 미면색(米麵色) :朝夕 밥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한 분장.

21 반선색(飯膳色) : 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한 분장.

22 별공작(別工作) : 각종 器皿, 床卓을 修補하고 혹은 새로 맞추는 일을 관장하는 한 분장.

23 잡물색(雜物色) : 잡비와 잡물을 맡아보던 한 분장.

24 나례(離禮) : 高麗 靖宗 후 음력신달그믐밤에 궁중에서 악귀를 쫓던 의식.

나례색(離禮色) : 나례를 행하는 일을 맡아보던 한 분장.

25 분공조(分工曹) :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工曹의 일을 분장하여 맡아보던 임시의 관아.

공조(工曹) : 6曹의 하나. 山澤, 工匠, 營繕, 陶冶에 관한 사무를 맡아 관장하는 官衙.

26 분내자시(分內資寺) :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내자시의 일을 분장하여 맡아보던 임시의 관아.

내자시(內資寺) : 궁중에서 사용하는 쌀, 밀가루, 술, 장, 꿀, 소채, 직조 및 內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관원은 正, 副正, 判官, 主簿, 直長, 奉事 등이 있음.

27 분내섬시(分內贍寺) :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내섬시의 일을 분장하여 맡아보던 임시의 관아.

내섬시(內贍寺) : 여러 宮家의 供上 및 2품관 이상에게 주는 술과 왜인 여진인에게 주는 음식 및 織布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28 분예빈시(分禮賓寺) :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예빈시의 일을 분장하여 맡아보던 임시의 관아.

예빈시(禮賓寺) : 조선왕조 때 賓客의 宴享과 宗宰의 供饋를 맡아보던 관아.

29 전설사(典說司) : 帳幕을 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관원은 守, 提檢, 別坐, 別提, 別檢 등과 靑史 15명, 使令 4명, 軍士 2명 등이 있음.

30 사용원(司饗院) : 조선왕조 때 御膳과 대궐안의 供饋의 일을 맡아보던 정3품 衙門.

사용(司饗) : 궁중용 음식을 요리하는 자.

31 장흥고(長興庫) : 조선왕조 때 돛자리 油紙 지물 등을 맡아보던 관아. 관원은 令, 主簿, 直長, 奉事 등이 있고 서리로는 書員 6명, 庫直 6명, 司倉 5명, 軍士 1명이 있음.

32 제용감(濟用監) : 조선왕조 때 布, 人蔘의 진현 및 의복의 賜與, 紗, 羅, 綾, 緞의 사여와 布貨의 염직을 맡아보던 관아. 太祖元년에 濟用庫를 두었다가 얼마뒤에 제용감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은 사, 부사, 승, 주부, 녹사 등이 있음.

33 상의원(尚衣院) : 조선왕조 때 御衣靴을 진공하고 궁중의 재물과 보물을 맡아보던 관아.

34 도청(都廳) : 都監에 종사하는 수석郎廳.

군색(軍色) : 일군색(一軍色)과 이색군(二色軍) 兵曹의 한 분장으로 龍虎營과 호련대(扈衛臺)의 保布를 맡은 분장을 일군색이라 하고 기병과 보병의 保布를 맡은 分掌을 2군색이라 함.

35 어전통사(御前通事) : 譯官, 王 通역하는 사람.

36 시강원통사(侍講院通事) : 王世子 통역하는 사람.

시강(侍講) : 임금 또는 동궁의 어전에서 글을 강의함. 또는 그 벼슬이름.

시강원(侍講院) : 이조 때 세자 시강원을 가리킴.

37 가사(假使) = 가령(假令).

38 가관반(假館伴) : 임시직관인.

39 차비관(差備官) : 특정의 사무를 분장키 위하여 임시로 임명된 관원.

40 가전(駕前) : 임금이 행차할 때에 그 수레 앞에서 侍衛兵.

41 가후(駕後) : 임금의 거동 때에 임금의 수레 뒤에 따르는 侍衛兵.

42 봉칙(奉勅) : 칙령(勅令)을 받들음.

廚房差備官 2員  
 跟隨差備官 4員  
 捲帳差備官 20員  
 次通官差備官 2員  
 頭目差備官 4員  
 都廳差備官  
 軍色差備官  
 敦化門差備官  
 司饗院差備官  
 承政院差備官<sup>③</sup>  
 侍講院差備官  
 京畿監司差備官  
 請來官 1員

掌務官<sup>④</sup> 1員으로 영접에 공식적으로 동원된 사람은 최소한 100여명을 능가하였다 한다.<sup>31)</sup>

#### IV. 現存하는 迎接都監의 儀軌와 膳錄

현존하는 迎接都監의 儀軌나 膳錄은 다음과 같다.

- 光海君元年(1609) 己酉  
 (1) 迎接都監米麵色儀軌  
 (2) 迎接都監盤膳色膳錄  
 (3) 迎接都監雜物色膳錄  
 (4) 迎接都監宴享色膳錄  
 (5) 迎接都監軍色膳錄  
 (6) 迎接都監都廳儀軌  
 光海君 2年(1610) 庚戌  
 (7) 迎接都監米麵色膳錄  
 仁祖4年(1626) 丙寅  
 (8) 迎接都監盤膳色儀軌  
 仁祖12年(1634) 甲戌  
 (9) 迎接都監都廳儀軌  
 (10) 迎接都監米麵色儀軌  
 (11) 迎接都監盤膳色儀軌  
 (12) 迎接都監宴享色儀軌  
 (13) 迎接都監雜物色儀軌  
 (14) 迎接都監應辦色儀軌  
 (15) 迎接都監君色儀軌  
 仁祖15年(1637) 丁丑  
 (16) 迎接都監君色儀軌  
 仁祖21年(1643) 癸未  
 (17) 迎接都監盤膳色儀軌  
 (18) 迎接都監宴享色儀軌

- (19) 迎接都監雜物色儀軌  
 (20) 迎接都監應辦色儀軌

#### V. 맺는말

朝鮮王朝의 건국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사절에는 조 선국왕의 즉위승인, 왕세자 책봉승인, 賜諡, 詔書, 咨文, 傳計, 帛祭, 冊封, 표류인송환, 도래인송환, 월경인문제, 입조화자관계, 처녀간택, 물품청구 등을 구하는 사신이 오며, 이들 사신은 의주에서부터 개성까지의 龍巖館, 義順館, 迎薰樓, 安興館, 大同館, 客館, 大平館의 접대 숙소에서 성대한 연향을 받고 이어 서울에 들어오면 慕華館, 仁政殿, 太平館에서 공식적인 7회의 연회외에 茶禮, 別茶啖, 盤排 등의 宴享이 제공되었다. 이들 사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朝鮮王朝에서는 迎接都監을 설치하여 만전에 대비를 하였으며, 영접도감에서 하는 일의 전달을 迎接都監儀軌와 迎接都監膳錄을 통하여 기록하였고, 現存하는 이들 기록은 光海君元年(1609), 光海君2年(1610), 仁祖4年(1626), 仁祖12年(1634), 仁祖15年(1637), 仁祖21年(1643)의 것이 남아있다.

#### 참고문헌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2. 李盛雨, 朝鮮王朝 行幸食, 嘉禮食, 迎接食 儀軌의 解題, 미원문화재단, 1988.
3. 金尚寶, 韓福眞, 李盛雨, 園幸乙卯整理儀軌中調理面에서 본 水刺床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4, No. 2, 1989.
4. 金尚寶, 韓福眞, 李盛雨, 園幸乙卯整理儀軌中調理面에서 본 粥床, 米飲床과 顯隆園에서의 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4, No. 4, 1989.
5. 金尚寶, 韓福眞, 李盛雨, 園幸乙卯整理儀軌中調理面에서 본 盤果床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1, 1990.
6. 金尚寶, 李盛雨, 御製國婚定例(1749)에 대한 分析的研究,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3, 1990.
7.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8.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1600年代의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1, 1990.
9.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同宴享所用器用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③ 승정원(承政院) : 조선왕조 때 왕명의 출납을 맡던 관아. 창덕궁 인정전의 동편 연영문 내에 있었음.

④ 장무관(掌務官) : 각官司의 낭관주임(郎官主任).

31) 李鉉淙, p.147.

32) 李盛雨, 朝鮮王朝迎接食儀軌, 미원문화재단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원지원, 1988.

33) 李盛雨, 朝鮮王朝 行幸食, 嘉禮食, 迎接食儀軌의 解題.

10.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3, 1991.
11.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同牢宴所用器用과 床花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3, 1991.
12. 金尚寶, 李盛雨, 朴惠媛, 韓福眞, 黃慧性, 韓福麗,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의 食儀禮에 대한 고찰,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1, 1991.
13. 金尚寶, 李盛雨 外4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正日進饌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1, 1991.
14. 金尚寶, 李盛雨 外4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夜進饌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2, 1991.
15. 金尚寶, 李盛雨 外4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翌日會酌과 萬慶殿翌日夜 謙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3, 1991.
16. 金尚寶, 李盛雨 外4人,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年 朝鮮王朝宮中進饌宴中萬慶殿再翌日會酌과 萬慶殿再翌日夜 謙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동아세아식생활학회지, Vol. 1, No. 3, 1991.
17. 李鉉淙, 明使接待考.
18. 通文館志.
19. 민족문화추진회, 만기요람I, 민문고, 1989.
20. 민족문화추진회, 만기요람III, 민문고, 1989.
21. 金在得, 朝鮮王朝篇, 古文獻用語解例, 培英社, 1983.
22.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87.
23. 李盛雨, 朝鮮王朝迎接食儀軌, 미원문화재단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원지원, 1988.
24. 金明培, 茶道學, 學文社, 1991.

1991년도

정기총회 및 제 14차 추계학술대회

# 한국 식생활에서의 김치문화

일시 : 1991년 11월 30일(토) 09 : 30~17 : 00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강당